

에이에프더블류, 상반기 매출액 129억 원, 영업이익 31억 원

- ▶ ESS 관련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
- ▶ 하반기 ESS 시장 정상화 및 글로벌 전기차 비중 확대 기대

[본 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 확인 후 검토 부탁드립니다.]

<2019-08-12> 전기차 시장의 차세대 리더 에이에프더블류(주)(대표이사 진정아)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9년 상반기 매출액 129억 원, 영업이익 31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

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21.8%, 영업이익은 45.0% 감소했다. ESS(에너지저장장치) 관련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배경으로 지목된다. 실제로 지난해 ESS 화재 이슈가 발생하며 올해 상반기 ESS 관련 매출은 작년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.

하반기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. 지난 6월 정부의 ESS 화재조사 발표 이후 국내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. 이와 더불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.

에이에프더블류 진정아 대표이사는 “산업 이슈로 상반기 ESS향 매출이 감소했으나, 하반기 ESS 시장 정상화 및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에이에프더블류는 지난 7월 구지 공장(제4공장)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CAPA 확대에 나섰다. 또 격년 개최되는 국제 배터리 박람회 'Battery China 2019'에 참가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.